

신정근 (유학대학장)

“가을은 꽃보다 단풍”

가을하면 워낙 ‘단풍’이 강하게 떠올라서 이 시절에 무슨 꽃이 피나 생각할 수 있다.

가을에도 투구꽃, 방울꽃, 각시취처럼 많은 꽃이 핀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꽃이 국화이다.

가을의 대표 꽃이라 아예 ‘추국(秋菊)’이라 말이 있을 정도이다.

그 밖에 흔히 볼 수 있는 꽃으로 코스모스와 구절초가 있다.

국화는 땅의 곳곳에도 피어 있지만, 거리의 다양한 모습의 화단에 심겨서 가을의 풍경을 느끼게 한다.

코스모스는 원래 길 양옆에 많이 피지만 요즘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

구절초는 햇빛이 잘 드는 비탈진 곳에 피는데 비천당의 오른쪽 비탈에 다복하게 피어 있다.



첫머리에 말했듯이 가을은 꽃보다 단풍이 더 돋보인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봄에 꽃 구경을 한다고 하듯이 가을에 단풍 놀이 또는 단풍 구경을 간다고 한다.

단풍을 구경하는 사람의 웃도 울긋불긋하다.

산에도 단풍이 한창이고 사람에도 단풍이 한창인 셈이다.



[비천당 옆 단풍나무]



[명륜당 600년 은행나무]



[심산길 철문 옆 불두화]

학교의 단풍은 아무래도 명륜당의 은행나무가 압권이다.

어제 오늘 학교를 오가다 명륜동을 들리니 많은 사람들이 예쁜 옷을 입고 사진을 찍는다고 모여 있는 걸 보았다.

대성로를 걷다 보면 단풍나무, 학생회관에서 도서관 쪽으로 오르면 벚나무 단풍이 사람을 반긴다.

퇴계인문관 옥상 정원에 올라가면 꽤 넓은 곳의 전망을 즐길 수가 있다.

옥상 정원이 애연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지만, 이곳저곳 소요하며 눈을 돌리면 은갓 단풍이 한 눈에 들어온다.

학교와 주변에는 단풍으로 유명한 곳만큼이나 단풍이 곱고 예쁘다.

멀리 단풍의 명승지를 찾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단풍 놀이를 잘 할 수 있다.

이 즈음이면 졸업생들은 야외수업하자고 선생님에게 요청해서 막걸리를 마시던 광경을 떠올릴 듯하다.

재학생 시절 봄의 벚꽃은 중간고사와 겹치지만 단풍놀이는 그렇지 않으므로 자연의 선물을 즐길 수가 있다.

계절이 사람에게 주는 선물을 즐기면서 삶을 더욱 풍성하게 가꿀 수 있으면 좋겠다.

*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shorts/54ps3zZYgbc>

* 글 : 신정근 학장

* 촬영·편집 : 이정민(유학·동양학과 20학번)

